

행복한 미술시장

'아트광주22' 당신을 초대합니다

6~9일 김대중컨벤션센터...114개 부스, 국내외·갤러리 참여 독일·프랑스·스페인 해외특별전 협의...아트광주조직위 출범

'누구나 즐기는 행복한 예술시장.'

어느 때보다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이다. 아트페어는 작품을 구입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사한 문화나들이 현장이기도 하다. 특히 초보 컬렉터에게는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진다. 이 점에서 흥미롭기도 하다.

13회 광주아트페어(이하 '아트광주22')가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1·2·3관에서 열린다.

'미술생태계를 지원하는 사랑받는 미술시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미술협회·아트광주조직위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의 본전시에는 114개 부스로 꾸려졌다. 서울 동숭갤러리, 피엔씨갤러리, 갤러리 자리아

트 등 국내 갤러리 75곳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11개 해외갤러리를 포함해 모두 86곳이 참여했다. 또 작가 기획전 부스(17개), 특별전 부스(11개)전도 마련됐다.

모두 79명의 작가가 참여하는아트광주22 기획전은 아트컬렉터, 갤러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작가들의 미술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다양한 부스로 구성됐다.

'호남미술의 지평'에서는 호남미술사의 중요한 가치를 공감하는 원로미술인 19명의 작품 50여점을 선보이며 '투데이 아티스트' 전에는 40명 작가 300점을 초대했다. 또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집중 전시하는 '라이징 아티스트'에서는 20명 작가의 250점을 만날 수 있다.

다양한 특별전도 마련됐다. 문화재단 컬렉션, 타지역과의 미술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국내외 단체교류전', '아트광주21 인기작가전', 'NFT&메타버스 전시' 등이다. 호남문화재단의 소장품이 출품되는 문화재단 컬렉션 부스에서는 마르크 사갈, 쿠사마 야요이, 이우환, 김창열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NFT&메타버스 전시 부스에서는 관람객에게 직접적인 체험의 기회를 제공, 새로운 형태의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소개한다.

행사 기간 중에는 미술 컬렉션, 미술품 세계 혜택, 미술품 보존 및 관리를 주제로 강연이 열리며 다양한 굿즈와 아트 상품을 판매하는 아트마켓도 열린다. 경품 추첨, 우수작가 선정 설문 조사 등도 예정돼 있다.

올해 아트페어는 몇가지 차별화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해외 갤러리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주최 측은 독일 베를린의 AM갤러리, 칼스루헤 갤러리 츠비센, 프랑스 파리 엘컨셉 갤러리, 스페인 두반 갤러리 등 6개의



지난해 열린 '아트광주21' 행사 모습.

해외 갤러리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아트광주 참여작가의 해외 특별전 개최를 추진, 지역 작가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지역 기업과 문화재단의 상시적 미술품 후원 체계를 구축하고 메세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아트광주 조직위원회(위원장 노동일)'를 구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태성문화재단이 2000만원을 도록 제작비로 지원했다.

행사 전부터 지역 참여갤러리를 홍보하는 프리페어와 소촌아트팩토리, 동국미술관 등에서 진행된 페어 참여작가 홍보를 위한 프리뷰(8차례), 온라인 강좌, 문화강좌 등을 진행해온 아트광주22는 온라인에 미술문화 플랫폼 기능의 홈페이지를 구축, 분행사와 미술계 소식, 작가페이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성인 1만원, 학생 7000원. 온라인 구매 할인. 미술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제출시 무료 입장.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내가 아는 컬렉션

원화 작품 중심 25일까지

광주신세계 갤러리



에바 알머스 작 'A walk'

광주신세계갤러리가 세 번째 아트페어 'Limited Art Fair: 내가 아는 컬렉션'을 오는 25일까지 개최한다.

미술계를 대표하는 국내외 거장들의 원화 작품을 중심으로, 광주신세계미술계 역대 수상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이번 전시에는 화제성 높은 작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최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회를 연, '유리구슬 조각'의 대가 프랑스의 장 미셸 오토니엘, 대상의 한순간을 캡처한 듯 단순하고 우아하게 그리는 알렉스 카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화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호크니 등이다.

또 유쾌한 그림으로 유명한 에바 알머스,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 너머의 정신성을 탐구하는 안니쉬 카푸어, 우고 룬디노네, 장 미셸 오토니엘, 쿠사마 야요이, 헤르만 바스 등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하는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난다.

한국의 대가들의 작품도 판매된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우환 작가를 비롯해 물방울 회화의 거장 김창열,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윤형근, 이우환, 천경자, 하태임, 등 한국 근현대 회화 거장들의 판화 작품 등이다.

이번 페어에서는 광주신세계미술계 출신 작가 12명의 90여 점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고전회화에 현대화를 접목시켜 디지털 기법으로 표현한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다양한 매체의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는 김상연, 자연과 도시를 여러 시점으로 관조하며 사유의 세계를 재해석한 조근호, 주변에 늘상 존재했지만 눈길이 머물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임남진 등이다.

그밖에 참여작가는 김용안·노여운·안희정·윤준영·이인성·임현채·조근호·하루.K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이비드 호크니 작 '꽃병'

'트리오 오원' 이 들려주는 독일 낭만주의

광주문예회관 실내악 시리즈, 1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

독일 낭만주의 음악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실내악 공연이 열린다.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 '트리오 오원'(사진)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에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펼쳐진다.

2009년 결성된 '트리오 오원'은 피아니스트 엠마뉴엘 슈트르세,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첼리스트 양성원 등 파리음악원 출신 세명의 연주자로 이뤄졌다. 이들은 한국과 프랑스는 지역·문화적 경계를 허물고 예술적 영감으로 청중과 음악적 가치를 공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공연의 첫곡으로는 클라리사우만의 '피아노 삼중

주 17번'을 선보인다. 17번은 클라리 작품 중 가장 규모도 크고 음악성도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어 독일 낭만주의의 굵은 선을 드러내는 슈만의 '피아노 삼중주 2번 op.80'을 연주한다. 마지막으로 브람스의 '피아노 삼중주 1번 Op.80'번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다음 실내악 시리즈 네번째 공연 '물토 파르렛'은 11월 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S석 3만원, A석 2만원(8세 이상 관람)이며, 예매는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613-8235.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문화유산기금, 8~9일 광주로 나주로 문화예술 답사

남도 음식과 고즈넉한 도래마을의 한옥에서 하룻밤, 그리고 권진규.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김홍남)이 남도로 예술답사를 떠난다. 8~9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나주로 예술과 문화를 찾아 떠나는 답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8일에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영원을 빛은, 권진규' 전시를 권진규의 조카인 허경희(권진규기념사업회 회장)의 특별 도슨트와 함께 관람한다. 전시에는 재단이 보존하는 시민문화유산 '권진규 아틀리에' 사진작품도 함께 전시중이다. 이어 근대문화유산이 잘 보존돼 있는 양림동 문화역사마을의 건축유산을 조선대 김재용 교수와 박종호 건축가의 해설을 통해 답사한다.

9일에는 나주 도래마을과 불회사, 나주읍성을 돌아보며 우리나라 전통 건축이 지닌 아름다움을 만나본다. 도래마을은 '도래마을 옛집'과 지방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살림집과 정자들이 어우러져 있다. 답사는 조선대학교 성대철 박사가 해설을 맡아 참가자들에게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한다.

재단법인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은 시민들의 힘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1호 최순우 옛집(서울 성북동), 2호 도래마을 옛집(나주시), 3호 권진규 아틀리에(서울 동선동)를 보존하고 있다.

온라인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229862/items/4066008>.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속가능한 삶, 문화예술로 모색... 12~13일 국제학술회의

기후위기를 비롯해 식량 문제, 전쟁의 위기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문화예술로 모색해보는 국제학술회의가 열려 눈길을 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문화' 그리고 '조화로운 삶을 위한 문화'라는 주제와 부제를 토대로 열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세계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인식의 근본에서 출발한다. 오는 12~1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이강현) 국제회의실.

이번 학술회의는 ACC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며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회의는 유튜브 '광주문화재단 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12일 정수복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 객원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담론이 펼쳐진다.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소 소장, 신혜란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노영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정책 연구실장, 파올라 레온치니 바르톨리우네스코본부 문화정책개발 국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문화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아시



지난해 열린 아시아문화포럼 장면.

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시아문화포럼 선언'을 채택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13일엔 광주시민회관 1층 카페에서 예술가 분과가 진행된다. 예술가들은 '기속 가능한 우리사회'를 위한,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위한 예술'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자는 오는 8일까지 아시아문화포럼 누리집 사전 접수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